

튜터링 (스터디) + IC – PBL 통합 시스템

: 하나의 시스템 페이지로 들어가서 세개의 주제를 다 할 수 있게 하는 편리한 일석삼조 통합 시스템 구축

이유) 100억이 예산인데 튜터링 매칭으로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남을 듯, 그리고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 그렇다고 튜터링이랑 ic-pbl을 따로 나누자니 접근성 불편과 귀찮음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해보고 느꼈던 튜터링 제도의 문제점

1. 팀 구성의 어려움 – 튜터가 같이 하고 싶어하는 튜티들을 직접 모아야 한다.
2. 생각보다 얼렁뚱땅 하는 멘토들이 많다 (튜티들도 바쁘니 이에 동의)
3. 교내 제도로 되어 있다 보니 소규모다.
4. 튜터링을 하기 전에 튜터들에게 멘토링 관련한 교육을 해주는 제도가 없다 - 진행, 내용 구성에 미숙하다.

내가 해보고 느꼈던 IC- PBL 의 문제점

1. 팀 구성(방식)의 어려움 (과목 담당 교수가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역량을 고려하거나 밸런스를 적합하게 맞춰서 팀을 구성하는데 어려움) – 이걸 해주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다.
2. ic-pbl 관련 페이지도 따로 있고, 팀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개발이나 프로젝트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툴 , 진행 사항 , 회의 및 팀 활동 문서 작성 등)가 분산되어 있다 – 팀활동에 있어 너무 힘든 점인 것 같다. 통합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다.
3. 교수님 피드백에 대한 어려움 (과정 중심이라는 ic-pbl 목적에서 변질되어 결과 중심으로 채점이 될 수 있다.)

➔ 팀 구성 (멘토-멘티 연결) + (IC – PBL 팀 연결)에 초점을 맞추자

➔ 많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 + 잘 짜여진 커리큘럼에 대한 홍보에 힘을 쓰자

통합 페이지

➔ 상단바에 기존 수강 과목 페이지 + 튜터링 + IC – PBL 로 카테고리 분류

➔ 기존 수강페이지 (대시보드,강의 콘텐츠&일정 공지사항 ,과제 제출,토론) 기능 유지

➔ IC – PBL 페이지

- 팀 활동 통합 기록 저장소 (팀 로그, 프로젝트 진행 마일스톤, 해야할 일)
- 교수 코멘트 및 피드백 공간 (태그를 걸어서 세부적으로 코멘트 가능)
- 과제물 제출, PBL 드라이브(팀이 자유롭게 업로드해서 공유하는 공간)
- + 팀 구성할 수 있는 역량 등록 및 조사 설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튜터링 페이지

- 튜터와 튜티 각각 본인의 관심사, 참여해보고 싶은 과목 키워드 선정 및 등록)

- 이를 토대로 선정 리스트가 구성되며, 이 중 참여신청을 보낼 수 있다.
 - 튜티는 튜터의 역량과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보고 팀을 구성할 수 있다.
 - 팀 구성 이후 튜터에게 멘토링 커리큘럼 관련 교육을 시행해준다. (역량에 따른 추천 시스템)
 - 튜터링 활동 관리 저장소 (활동 로그, 진도율, 튜터와 튜티간의 상시 피드백, 과제물 등)
 - 튜터링 드라이브 (활동 보고서 상시 제출, 첨부 파일(강의자료, 참고 문서 등)
- + 수료 인증 제도의 도입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수료증 발급, 우수 튜티 튜터 장학금, 포트폴리오 자동 기입 등..)
- 사회봉사만을 위한 튜터링이 아니라, 실제 스터디 느낌의 튜터링 제도로 교외까지 확장 가능할 것이라고 보임

+ **포트폴리오 페이지도** 따로 구성하여 (마이페이지 처럼)

활동 자동 기입 기능 (행정실,학교 측과 학생 모두에게 따로 기입안해도 되는 편리함 제공)

대학 생활 기록을 토대로 진로 상담에 참고하여 할 수 있는 자료 증빙 가능 기능

관심 분야 설정 및 프로젝트, 대외 활동 등의 관련 키워드 설정 후 맞춤형 취업 + 기업 정보 연계 추천 서비스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따로 취업 관련 사이트 검색해서 찾아보는 번거로움 삭제!